

수요자 관점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실태 분석*

: 서울시 거주 결혼이민여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Analyzing Actual Condition for Developing A Married
Immigrant Families Support Program from the Consumer' Viewpoint

: Focused on Seoul Residing Married Immigrant Women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 수 김 양 희**

중앙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 안 진 경***

Dep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

Professor : Kim, Yang-Hee

Dept. of Home economics, Chung-Ang Univ.

Doctoral course : Anh, Jin-Ky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base line research, which is based on requestion of international married immigrant women, for developing social adaptation and family enrichment program for those population who reside in Korea. The survey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142 international married immigrant women who reside in Seoul to research program participate satisfaction and requestion. Analyze the study results, frequency, percentage, t-test, ANOVA and Duncan-post test were utilized.

As a result, overall satisfaction toward program that offered by organization was highly ranked. Visiting service showed high score of satisfaction but mentor service that strongly possess sacrifice showed lower score of satisfaction. Vocational and job-related skill improvement education presented less satisfied degree of satisfaction but cooking class, computer class, training education for native-speaking instructor present high level of satisfaction.

Second, the requisition of target population, who did not participate program, presented lower than the satisfaction, still present high demand of variety area of program. Among them, assist child nurturing and vocational and job-related skill improvement education showed high demand. It enable to predict that they are eager to get support toward parent role and self-realization.

Third, when the difference were analyzed to compare the subjective judgement toward life adaptation in Korea and the satisfaction for program user and the requisition of non-user, the meaningful differences were founded; especially, individuals who possess confident degree of computer skills and Korean(reading, speaking, and listening) showed higher degree of satisfaction to vocation and job-skill related improvement education.

This study has a practical implication, which is based on the study results, on developing a program to support international married immigrant women and multicultural families to satisfactory settlement in Korea life and to maintain healthy families.

▲주요어(Key Words) : international married immigrant women(국제결혼이주여성), developing social adaptation(사회적응발달), family enrichment program(가족역량강화프로그램), in Korea(한국적인), research program participate satisfaction and requestion(만족도, 요구도조사), Consumer's viewpoint(수요자 관점)

* 본 연구는 중앙대학교 2007학년도 학술연구과제비로 수행
되었음.

** 주 저 자 : 김양희 (E-mail : kimyhee@cau.ac.kr)

*** 교신저자 : 안진경 (E-mail : jay010@nate.com)

I. 서론

정보통신의 혁신적인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도구와 수단의 발달은 전지구화, 세계화, 인구이동의 가속화 등 거대한 사회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내었다. 한국 역시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 외국인 유입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결혼이민자가정의 증가라 할 수 있다.

이전까지의 다문화가족에 관한 우리사회의 수용태도는 다소 비관용적이었으며, 외국인관련 정책 역시 거의 존재하지 않아 그들을 위한 국내 복지지원체제의 수준은 매우 낮았다. 게다가 증가하는 국제결혼은 국내에서의 결혼성립이 용이하지 않았거나, 혼인적령기를 넘겼거나, 학력이 낮거나 초혼이 아니거나 혹은 낮은 경제적 수준의 남성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강기정·정천석, 2009). 또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가 낮고, 혼인연령이 한국의 여성평균연령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결혼이민여성이 이룬 다문화가정의 취약점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가족적 문제에서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수는 2009년 12만5000여 명으로 집계되어 5년 전인 2004년 5만7000여 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여(매일경제, 2010.4.27) 우리사회의 가족 및 복지정책 등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재한외국인의 증가추세와 결혼이민자와 가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해 2008년 6월에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같은 해 9월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되었으며, 그 밖에도 가족법, 국적법 등의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법제처, 2010).

이러한 정부정책의 변화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2조에 의거하여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복지전문기관으로서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0년 현재 전국 170여 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그 밖의 NGO단체,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기관 및 글로벌센터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기관이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여 다양한 주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동화주의적인 프로그램의 시행, 획일적인 프로그램 시행, 지역 및 인근 거주지 대상자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평이한 프로그램의 운영 등으로 인하여 결혼이민자의 비자발적 참여 및 간헐적 참여 등에 관한 다양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국내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에 관한 현황분석과 관련연구의 미비함으로 인해 결혼이민자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을 구성, 운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이 요구되고 있다(김양희 등, 2008)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인구·사회·가족학적인 변화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가정을 '수요자' 혹은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 그들의 요구에 맞추어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초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기존에 이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만족도를 조사하고,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향후 참여할 의사가 있는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동일대상의 참여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비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요구도가 나타나는 것은 어떠한 프로그램인지에 대해 분석하여 결혼이민자의 프로그램 참여동기를 높여 참여율을 증가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라 할 수 있다. 결국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적응능력을 보다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수요자 관점에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조사의 성격을 내포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가족지원기관의 프로그램 개발자 및 운영실무자 등의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참여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생활에 관한 적응의 정도와 일반적 현황을 조사하고, 수요자 관점의 만족도와 요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분석한 뒤 그 실태를 파악하여 결혼이민자가족지원기관에서 사용될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도출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현황과 자신의 한국생활에 관한 주관적 평가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자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비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자의 요구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한국생활에 관한 주관적 평가변인에 따른 비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자의 요구도는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통계청(2009)의 보고에 의하면 2008년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36,204건으로 집계되었으며, 1990년 전체혼인율의 1.2%를 차지했던 국제결혼은 2008년 10~11%를 차지하고

있다(김승권 등, 2009; 계선자 등, 2009). 2009년 실시된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가족은 전국 154,333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역거주분포는 경기 40,199명, 서울 34,652명, 인천 9,804, 경남 9,527명의 순으로 보고되었으며, 중국(조선족, 한족 등),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의 출신국 순으로 집계되었다(김승권 등, 2009).

국내 거주인구분포상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은 사회적으로는 국가 간·문화 간 이동의 결과이며, 개인적 차원에서는 가족 간 이동이 되기에 개인을 포함한 가족 차원에서의 상호적인 적응 및 다문화적인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오윤자 등, 2009).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적응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정이 우리나라 내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의 이민선택 동기 중 사회경제적인 지위상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오윤자 등, 2009)과 한국인배우자와의 연령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결혼이민자의 향후 국내에서의 지속적인 삶을 유지시키기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와 가족의 증가라는 사회현상에 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우리 사회는 결혼이민자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여성들은 언어문제, 경제문제, 가족 간의 갈등,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다(장명선·이옥경, 2009). 게다가 결혼이민성과 그 배우자 및 가족 등이 국제결혼을 위한 사전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결혼, 준비 되지 않은 배우자됨, 준비되지 못한 부모됨 등이 진행되는 경우 사회부적응을 초래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박행모·문승태, 2008). 이러한 부적응의 결과는 다문화가정의 이혼을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혼 및 별거의 사유로는 성격차이, 경제적 무능력, 외도 등이 조사된 바 있다(김승권 등, 2009).

결혼이민여성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우리나라 사회의 변화에 대한 국내연구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여성 혹은 이주여성의 현황 및 실태연구(이순형, 2007; 최승희, 2008; 김유경, 2009; 박기관, 2009), 한국사회에서의 적응(adaptation) 및 부적응에 관한 연구(설동훈·윤홍식, 2005; 양순미, 2006; 이해자·강기정, 2008; 장진경 등, 2008; 추현화 등, 2008; 최혜지, 2009; 박재규, 2009)와 스트레스의 요인에 관한 연구, 정착지원을 위한 지원과 정책방안 연구(조상균 등, 2008; 설동훈, 2010; 이학춘, 2010)등으로 유목화 될 수 있다.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에 관한 현황 및 실태연구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특정 대상자를 추출하여 미시적으로 실시되고 있었으나, 2009년에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를 통

해 결혼이민자가족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전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55.9%인 약 7만 여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적 변인 및 가족관계만족도, 요구도 등이 조사된 결과, 중국,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았으며, 연령은 24세 이하와 25~29세 층이, 학력은 고졸보유자가 가장 많았다. 부부간 연령차이는 평균 10세 이상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체류2년 미만 대상자에게는 한국어교육과 한국사회적응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제기되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직업습득은 한국에서의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기에 직업훈련관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다문화가정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등이 실시되어야 함을 제언하고 있다(김승권 등, 2009).

국내 결혼이민여성의 사회경제적 적응을 살펴본 설동훈과 윤홍식(2005)의 조사에서는 대상집단을 12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취업비율, 가구소득수준 등 사회경제적 수준의 상대적인 차이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적 적응이 가장 우수한 집단은 몽골이민여성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적응이 우수한 집단은 베트남이민자 중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중국이민자 중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적응에 관한 지원에 있어 모든 여성 결혼이민자의 욕구수준은 집단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결혼이민여성의 상이한 특성에 근거한 다양한 차원의 정책수준을 고려할 것과 결혼이민여성의 정체성을 포기한 채 한국에 일방적으로 동화되지 않으며 적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마련을 과제로 제시되었다(설동훈·윤홍식, 2005). 문화적응에 대한 다차원적인 이론을 본 최혜지(2009)의 연구결과에서는 베트남국적, 낮은 연령, 낮은 교육수준, 유배우자는 통합유형으로, 긴 거주기간, 많은 자녀 수, 낮은 회복력은 동화유형으로 나타나 문화적응유형별로 결혼이민여성의 통합적 문화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특히 결혼이민여성의 결혼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변수로 결혼이민여성 배우자의 사회적 인 지지는 다문화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자원으로 결혼적응에 효율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추현화 등, 2008)

이렇게 다양한 개인적, 가족적, 사회화적인 변인으로 인한 다양한 차이가 보고되고 있는 결혼이민자 혹은 다문화가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미루어 볼 때 결혼이민자 및 가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현재 한국사회생활적응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2. 결혼이민자가족지원기관 및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동향

<표 1> 결혼이민자가족지원기관 유형별 분류

기관명	운영주체	재원	기관명	운영주체	재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병합형, 다기능형),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정부보조금 및 법인자부담 등	비영리민간단체 및 종교단체 등	해당법인 및 단체	법인부담금, 후원금 등
글로벌센터	지방자치단체 등		(종합)사회복지관	해당법인단체	법인부담금, 후원금 등
외국인(지원)센터	법무부, 노동부 등		(지역)주민센터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보조금 등
학교 및 부설기관	교육과학기술부 및 학교법인 등		문화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정부보조금, 회원비 등
농수산부 산하기관	농림수산식품부				

※ 공모사업으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공모사업비 후원단체에 따른 운영주체 및 재원이 상당히 다양해 지므로 기재를 생략함.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결혼이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의 현황, 재원 및 주체 등을 분석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국내의 결혼이민자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은 정부운영기관, 지역사회복지기관, 종교단체, 거주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부설기관, 지역사회 내 민간단체, 외국인지원 민간기관 등으로 <표 1>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최운선, 2007; 유용식·손호중, 2009; 오윤자 등, 2009).

김양희 등(2008)의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공립기관과 자치단체,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며, 성별로 분류된 개인대상지원프로그램과 자녀, 부부, 친족으로 분류한 가족대상 프로그램을 교육, 상담, 문화, 자녀보호사업, 자조집단사업, 네트워크형성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바 있다. 조사결과 프로그램의 중복 및 네트워크의 부재, 지역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인 프로그램 등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김양희 등, 2008).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문화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결혼이민여성의 교육참여 경험에 관한 박진영(2009)의 연구에서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한글교육, 한국문화이해교육을 중심으로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중복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동화를 강조하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차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양가적 측면의 결혼이민여성의 참여 동기와 경제력을 갖춘 독립된 주체가 되기를 희망하며 문화교류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감이 생성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가장 필요로 생각하고 있는 이주민 사회통합서비스로 한국어교육, 취업교육훈련, 정보화교육, 한국요리강습의 순으로 나타났으며(설동훈 외, 2006), 출신국가별 결혼이주여성

의 이민사회생활적응을 살펴보기 위한 각종 정책적 지원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취업상담 및 알선, 한국요리강습, 직업훈련 및 교육, 한국어교육 등의 순으로 요구되고 있었다(정기선, 2009). 결과적으로 결혼이민여성과 결혼이민자가족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복지적인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결혼이민자가족의 문화적 적응과 통합차원에서 고려되어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제언되고 있다. 반면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방안을 연구한 김유경(2009)의 조사결과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은 한국어교육, 자녀육아 및 교육지도 도움제공, 부모상담, 취업교육 및 취업훈련의 순으로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었다.

다문화가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이학춘(2010)의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초기정착교육의 의무화를 통해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취업지원대책을 마련하여 통제된 결혼이민자들의 생활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아울러 의료 및 법률의 전문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참여하였던 프로그램은 어떠한 것들이 가장 많았으며,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 순위로 나타나고 있는지와 참여할 의사가 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참여하지 못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자 선정 및 자료처리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중심

<표 2> 설문지 구성 현황

영역	내용	문항수
일반적 사항 조사	연령, 국적, 학력, 직업 및 소득, 혼인상태, 거주기간, 국적취득여부 등	9
만족도 조사	방문사업, 사회생활적응교육, 가족통합교육, 다문화인식개선, 직무 및 기술능력 향상교육, 자녀양육지원, 긴급지원, 일반생활지원	55
요구도 조사	방문사업, 사회생활적응교육, 가족통합교육, 다문화인식개선, 직무 및 기술능력 향상교육, 자녀양육지원, 긴급지원, 일반생활지원	55
한국 적응에 관한 주관적 판단	모국출신 친구와의 만남 빈도, 자조모임참여의 정도, 모국가족과의 연락방법 및 빈도, 주관적인 한국어 실력, 결혼생활에 대한 희망사항,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 가장 힘이 되는 사람	10

으로 이들의 소개를 통하여 설문에 응할 수 있는 결혼이민여성 142명을 편의표집을 통해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예비조사는 2009년 9월부터 약 한 달간 17명의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결혼이민여성의 특성 상 한국어질문지를 통한 면접조사의 어려움을 격감시키고자 2009년 10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를 통해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결혼이민여성과 이들의 소개로 알게 된 170명을 선정하여 개별가정에 방문하거나 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할 수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의 특성 상, 일대일로 진행되어야 확실한 의사소통의 전달효과를 통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겨져 면접설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락처와 주소지가 모두 명확한 대상자를 구하고, 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동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대상자를 표본으로 삼기 위하여 본 연구결과가 정확할 수 있도록 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를 구했다.

설문조사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미숙할 수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배려하고자 설문지의 목적 및 취지에 관해 상세히 설명한 뒤 이루어졌으며,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설문을 번역하여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17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100% 회수되었으나 기록내용의 부실 및 통계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28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42부를 통계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통계 처리는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결혼이민자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수요자 관점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빈도, 백분율, t-test, ANOVA, Duncan사후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결혼이주여성들의 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에 관한 만족도와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안내(2010)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온라인 홈페이지, 브로슈어를 참고로 구성하였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진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관리자급 3인을 대상으로 문항선정에 관한 조언을 구하여 수정·보안하였다. 문항은 일반적 사항에 대한 조사 영역 9문항,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조사를 위한 55문항,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위한 55문항, 한국 적응에 대한 결혼이민여성의 주관적인 생각을 파악하기 위한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기초조사 영역과 한국 적응에 관한 주관적 판단은 태어난 연도, 한국거주 총 기간, 남편과 일상대화에서의 한국어사용 정도를 제외(나머지 문항을 폐쇄형 질문으로, 만족도와 요구도는 5점 Likert식(5점=매우 만족, 1점=매우 불만족)으로 구성하였다. 한국 적응에 관한 주관적 판단 문항은 결혼이민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가족요인, 스트레스 요인, 자원요인 등(김현숙, 2010)에 사용된 다양한 문항을 바탕으로 예비조사에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10문항을 선정하였다.

동일한 대상자에게 한 가지라도 이용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에 표기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요구도 조사'에는 중복 응답할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비이용자의 경우 '만족도 조사'에 표기하지 않고 '요구도 조사'에만 응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복지현장에서 프로그램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는 상시 요구도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표적대상에 대한 향후 이용의사에 대한 요구도를 반영하는 지표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이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조사는 생략하였다.

- 1) 한국연령기준과 모국에서의 연령기준의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태어난 연도를, 총 거주기간의 경우 대상자의 거주기간의 분포도가 매우 다양할 것을 대비하여 개방형으로 기입하도록 하였음. 남편과의 한국어사용 빈도는 주관적 기준에 관한 선행연구가 미흡하여 응답자의 한국어 사용빈도 분포를 파악하고자 개방형으로 유도하였음.

IV. 연구결과

1. 일반적 현황과 한국생활에 관한 주관적 평가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표 3>와 같이 나타났다. 연령은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았고 베트남, 중국, 일본 출신의 이주민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력은 중졸, 고졸, 대졸이하가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대다수 현재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91.5%인 129명이 초혼이며, 한국에서의 총 거주기간은 3년 미만인 경우가 60.6%를 차지하였다. 가계소득은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이 유사한 분포를 보였는데, 그 중 가계소득을 모르고 있는 여성이 12명(8.4%)으로 나타나 남편소득에 대한 정보를 부부가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다소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귀화 혹은 귀화신청을 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신청 중인 자를 포함해 국적을 취득한 자는 56명(39.4%)이었고, 54명(38%)은 신청 자격이 되지 않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32명(22.5%)은 신청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의사가 없는 이유를

문자 모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취득의사가 없다는 자가 47%인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생활에서의 적응에 관한 주관적인 판단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응답은 <표 4>와 같다. 먼저,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 희망하였던 것으로는 행복한 결혼생활이라고 76.8%가 응답하였으며, 취업활동에 8.5%가 응답하였다.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가장 최우선하고 있다는 점은 결혼이민자지원기관의 프로그램이 결혼이민자가족의 건강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혼이민자는 모국인 친구와의 만남을 90%이상 연간 주기적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만나지 않은 응답자는 없었다. 그 중 53.5%가 거의 매일 혹은 주 1회 이상 만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모국인집단의 모임을 대다수 참여하며 한국생활에서의 적응에 관한 정보 및 도움을 얻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조사대상자의 전체는 모국가족과의 연락을 취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전화(75.4%)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주1회 이상 연락하고 있는 자가 81명으로 56.4%를 차지하고 있었다. 즉, 대다수의 결혼이민여성들은 모국가족과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하며 전화연락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해외전화이용부담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집단	빈도(N)	비율(%)	변인	집단	빈도(N)	비율(%)
본인 연령	60년대	9	6.4	결혼상태	초혼	129	91.5
	70년대	56	39.7		재혼	9	6.4
	80년대	68	48.2		이혼	2	1.4
	90년대	8	5.7		기타	1	0.7
본인 국적	중국	42	29.6	총 거주기간	1년 이하	30	21.1
	베트남	51	35.9		1-3년	56	39.4
	일본	15	10.6		3-5년	19	13.4
	캄보디아	10	7.0		5-7년	16	11.3
	필리핀	6	4.2		7년 이상	21	14.8
	몽골	5	3.5	가계소득	없음	6	4.2
	태국	3	2.1		100만원 미만	35	24.6
	우즈베키스탄	7	4.9		100-200만원 미만	35	24.6
대만	3	2.1	200-300만원 미만		36	25.4	
			300만원 이상		18	12.8	
최종학력	무학	5	3.5	수입 모름	12	8.4	
	중졸이하	43	30.3	한국국적 취득여부	국적 취득함	24	16.9
	고졸이하	48	33.8		신청 중이다	32	22.5
	대졸이하	40	28.2		신청 자격 미달	54	38.0
	대학원이상	6	4.2		신청의사 없다	32	22.5
직업	전업주부	121	85.8	한국국적 신청 의사 없는 이유	취득 의사 없음	15	47.0
	정규직(주5일)	3	2.1		본국귀국예정	3	9.3
	비정규직(아르바이트)	12	8.5		남편의 미동의	1	3.1
	자영업	1	0.7		기타(무응답 포함)	13	40.6
	가족의 업무지원	1	0.7				
	기타	3	2.1				
계		142	100	소계		32	100

<표 4> 자신의 한국사회생활적응에 대한 주관적 판단

변인	집단	빈도(N)	비율(%)	변인	집단	빈도(N)	비율(%)
모국인 친구와의 한국에서 만남빈도	거의 매일	18	12.7	모국가족과의 연락 주기	거의 매일	23	16.2
	주1회 이상	58	40.8		주1회 이상	80	56.4
	월1회 이상	26	18.3		월1회 이상	31	21.8
	연4회 이상	11	7.7		연4회 이상	8	5.6
	거의 만나지 않는다. 만남 적이 없다	22 7	15.5 4.9		모국가족과의 연락 방법	전화	107
			인터넷(메일, 채팅)	35		24.6	
한국에서의 자조모임참여	모국결혼이민자(가족)모임	62	43.7	입국 전 한국결혼 생활에서 희망한 것	취업활동	12	8.5
	결혼이민자(가족)모임	23	16.3		행복한 결혼생활	109	76.8
	기타모임	6	4.2		국적취득	4	2.8
	참여한 적 없다	51	35.9		경제적인 윤택함	8	5.6
한국어 실력	초급이하(기초)	59	40.1	희망한 것	자녀교육환경	6	4.2
	초급에서 중급과정	50	35.2		친정가족초청	1	0.7
	중급에서 고급과정	21	14.8		기타	2	1.4
	고급과정	12	9.9				
한국생활 중 어려움	한국어학습	68	47.9	결혼생활에 가장 힘이 되는 사람	남편	112	78.9
	음식·생활문화적응	21	14.8		자녀	12	8.5
	현재 가족과의 관계문제	18	12.7		시댁식구	4	2.8
	한국 사람과의 관계	16	11.3		친정식구	3	2.1
	임신, 출산(불임) 어려움	7	4.9		기관실무자	5	3.5
	경제적 어려움(친정송금 등)	4	2.8		주변 한국인	4	2.8
	도움 받을 곳이 없음	4	2.8		주변 결혼이민자	2	1.4
	기타	4	2.8				
계	142	100	계	142	100		

금은 결혼이민자가정의 경제적 부담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 예상된다. 자신의 한국어실력에 대해 9.9%제외하고는 고급 단계 미만이라고 평가하여 언어적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생활 중 어려운 점으로 한국어학습(N=68, 47.9%)> 음식·생활문화적응(N=21, 14.8%)> 부부, 부모자녀 등 가족관계문제(N=18, 12.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움을 16명(11.3%)이 호소한 것을 볼 때 아직까지 한국인을 대할 때의 결혼이민자의 긴장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은 남편이라고 응답한 자가 78.9%로 남편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민여성에게 남편의 지지 및 남편과의 관계가 행복한 결혼생활에 매우 중요한 조건일 것이라 추측된다.

2. 참여 프로그램의 만족도 현황

조사대상자 중 결혼이민자가족지원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를 대상으로 이용한 7영역의 55가지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가장 서비스를 많이 받은 영역은 방문사업이었으며, 사회생활적응교육, 다문화인식개선 및 문화체험, 취업능력향상교육 등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생활 적응교육의 '리더십 교육', 자녀양육지원의 '자녀영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는 없었다.

가장 많이 이용한 세부프로그램은 한국어집합교육, 찾아가는 한국어서비스, 찾아가는 아동양육서비스, 요리교육, 산모도우미 순으로 나타나 한국어교육지원과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의 수혜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통합교육, 생활지원, 자녀양육지원은 상대적으로 이용자의 수가 적었으며, 강사양성과 관련된 교육 등은 응답표기율이 매우 낮았다. 이 중 자녀양육지원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자녀연령이 매우 낮거나 아예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어 이용률이 낮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55문항 평균 3.93점이었으며, 만족도 점수가 높은 영역별로는 생활지원(M=4.41)> 방문사업(M=4.38)>가족통합교육(M=4.23)>다문화인식개선 및 문화체험(M=4.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지원사업(n=69, M=4.41)은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어 대상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 여겨진다. 방문사업분야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멘토링서비스에 관한 만족도는 평균 점수에 미달되어 이용대상자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멘토링 서비스는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절반이상이 실시하고 있는 대표사업이지만(오윤

자 등, 2009) 봉사활동의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멘토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양성하는데 철저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등 멘토링 서비스체계가 전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통합교육(n=67, M=4.23)은 응답수가 낮는데 비해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한국에서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이주한 결혼이민여성에게 매우 필요한 교육이었음을 알 수 있다. 취업 및 창업활동 등 경제생활과 관련되어진 직무 및 기술능력향상분야는 106명이 응답하였으며 평균 3.99점의 만족도가 나와 전체평균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원어민강사(M=5.00), 요리교육(M=4.58)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반면, 운전면허교육 2.50점, 다문화강사양성교육 3.50점, 이중언어지도사 양성교육 3.75점으로 취업의 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낮은 가능성이 높은 직무 및 기술능력 향상교육의 만족도는 평균에 미달되었으며 동일영역의 취미교실(M=4.42)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가 전업주부였던 조사대상자들이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진 교육을 희망하였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반면 사회생활적응교육은 149명의 응답자의 평균만족도가 3.24점으로 전체평균점수에 달하지 못하였다. 이는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생활에 적응하

<표 5>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 응답 현황

구분	내용	N	M	구분	내용	N	M
생활지원 (긴급구호포함)	생활체험	3	5.00	방문사업	찾아가는 한국어서비스	80	4.85
	상담지원	5	4.75		산모도우미 서비스	42	4.74
	거주지 지원	17	4.65		찾아가는 아동양육서비스	58	4.57
	의료(검진)지원	12	4.58		멘토링(본인)	10	3.70
	현금지원	10	4.11		멘토링(자녀)	9	3.44
	현물지원	13	4.00				
	통·번역지원	9	3.75				
소계		69	4.41	소계		199	4.38
가족 통합 교육	가족통합교육	13	4.38	다문화 인식개선	한국어대회	14	4.27
	부모자녀관계 향상교육	8	4.38		다문화(가족)페스티벌	24	4.23
	자녀양육 부모교육	11	4.27		공연관람(음악회 등)	29	4.22
	배우자교육	9	4.22		장기자랑대회참가	9	4.22
	부부관계 향상교육	10	4.13		문화공연탐원활동	17	4.00
	시댁관계향상교육	8	4.13	문화교류프로그램	7	4.00	
	부부 성교육	8	4.13	모국어어대회	6	4.00	
소계		67	4.23	소계		111	4.10
직무 및 기술능력 향상교육	원어민강사 양성	2	5.00	자녀양육 지원	방과 후 학교	3	4.33
	요리교육	48	4.58		보육서비스(일시보호포함)	11	4.30
	취미교실	12	4.42		이중언어	5	3.80
	컴퓨터 교육	27	4.19		음악특기	4	3.75
	아동지도사(구연동화 등)	3	4.00		기타	2	4.00
	통번역사 양성	2	4.00	체육특기	2	2.00	
	취업상담 및 연계	3	4.00	소계		27	3.94
	이중언어지도사 양성	5	3.75	사회생활 적응	한국어 집합교육	81	4.28
	다문화강사 양성	2	3.50		한국전통예절교육	11	4.20
	운전면허교육	2	2.50		한국명절체험	21	4.10
					법률 및 인권교육	4	4.00
			에티켓교육		13	3.92	
			경제 및 소비자 교육		8	3.43	
소계		106	3.99	소계		149	3.24
사회생활 적응	한국어 집합교육	49	3.94	사회생활 적응	외국어 교육	87	3.32
	에티켓교육	85	3.83		유권자 투표교육	82	2.86
	한국명절체험	87	3.74		리더십교육	81	2.71
	한국전통예절교육	90	3.73		모국어로 진행되는 교육	81	2.55
	법률 및 인권교육	88	3.42		경제 및 소비자 교육	81	2.41
소계				소계		811	3.25

는 데 있어 실제적으로 가족통합교육과 생활지원이 도움이 되었던 반면 사회생활적응교육은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였거나 교육의 내용이 결혼이민자에게 부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 비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현황

결혼이민자가족지원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조사대상자들의 요구도는 평균 3.63점으로 나타났다(<표 6>참고). 요구도에 대한 응답의 수가 가장 많은 영역은 직무 및 기술능력향상교육(n=891)과 사회생활적응교육(n=811)이었으며, 요구도 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자녀양육지원(M=4.17)> 직무 및 기술능력향상교육(M=3.81)> 방문사업(M=3.65), 생활지원(M=3.6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지원영역의 7개 세부분항의 요구도 점수는 모두 평균점수를 넘게 나타나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요구가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영어교육은 95개의 응답수와 4.24점의 높은 요구도 점수를 보이고 있어 한국사회의 자녀영어교육에 관한 부모들의 높은 욕구와 유사한 것

으로 해석되어 자녀를 위한 영어교육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직무 및 기술능력향상교육 영역에서는 요리교육의 요구도(M=4.19)점수가 평균 점수에 비해 높은 반면, 다문화강사양성에 관한 요구도(M=3.26)는 상당히 낮게 나오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요리교육은 한식조리사 자격 등을 위한 직무 및 기술능력향상교육이면서도 한국사회생활적응에 있어 매우 직접적인 부분이기에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강사양성의 요구도 점수는 현재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및 사회적 일자리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많은 결혼이민자가족지원기관에서 상당 수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도 점수는 낮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개설된 프로그램의 사례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방문사업의 경우 멘토링 서비스의 요구도가 동일 영역의 프로그램 요구도 점수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나 멘토링 서비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업운영에 대한 논의 및 다문화가정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매뉴얼 마련 등 작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생활지원영역의 평균 점수는 3.65점이지만 의료지원, 현금

<표 6> 프로그램 비이용자의 요구도 응답 현황

구분	내용	N	M	구분	내용	N	M
자녀양육 지원	보육서비스(일시보호포함)	93	4.38	직무 및 기술능력 향상교육	요리교육	88	4.19
	영어	95	4.24		컴퓨터 교육	92	4.09
	음악특기	91	4.24		통번역사 양성	91	3.99
	이중언어	99	4.23		운전면허교육	93	3.90
	방과 후 학교	86	4.19		취업상담 및 연계	93	3.88
	체육특기	87	4.11		취미교실	92	3.86
	기타	40	3.81		이중언어지도사 양성	90	3.80
					아동지도사(구연동화 등)	91	3.61
소계	591	4.17	원어민강사 양성	83	3.56		
방문사업	찾아가는 한국어서비스	69	4.04	다문화강사 양성	78	3.26	
	찾아가는 아동양육서비스	64	4.11	소계	891	3.81	
	산모도우미 서비스	59	3.46	생활지원 (긴급구호포함)	의료(검진)지원	94	4.15
	멘토링(자녀)	87	3.69		현금지원	96	4.10
	멘토링(본인)	83	3.61		현물지원	89	4.04
	기타방문서비스	33	2.96		통·번역지원	83	3.69
					거주지 지원	87	3.51
			상담지원		82	3.05	
			생활체험		77	3.04	
소계	395	3.65	소계	608	3.65		
가족 통합 교육	자녀양육 부모교육	95	3.88	다문화 인식개선 · 문화 체험	다문화페스티벌	79	3.76
	가족통합교육	90	3.72		한국어대회	81	3.56
	부모자녀관계 향상교육	85	3.49		문화공연팀원활동	84	3.49
	부부관계 향상교육	89	3.45		공연관람(음악회 등)	76	3.49
	배우자교육	88	3.34		모국어어대회	78	3.36
	부부 성교육	83	3.25		문화교류프로그램	87	3.40
	시댁관계 향상교육	84	3.02		다문화인식개선캠페인	81	3.34
					장기자랑대회참가	79	3.00
소계	614	3.45	소계	645	3.43		

<표 7> 프로그램 비이용자의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종속변인	독립변인	N	M	SD	F	
직무 및 기술능력 향상교육	모국인 친구와의 만남빈도	거의매일	14	3.20 ^a	1.16	2.586*
		주1회 이상	50	2.68 ^a	1.14	
		월1회 이상	23	2.84 ^a	1.13	
		연4회 이상	10	2.03 ^a	1.52	
		거의 만나지 않는다.	21	1.50 ^a	1.37	
		만난 적이 없다	5	1.10 ^b	.75	
	모국가족과의 연락주기	거의매일	20	2.82	1.35	2.688*
		주1회 이상	71	2.68	1.21	
		월1회 이상	25	2.01	1.20	
		연4회 이상	7	1.55	.68	
방문사업	자조모임참여	모국모임	54	2.16 ^b	.972	3.391*
		타국모임	14	1.29 ^a	.60	
		기타모임	6	1.75 ^a	1.11	
		참여한 적 없음	41	2.10 ^b	1.02	
자녀양육		모국모임	48	3.38	1.14	4.062**
		타국모임	14	2.98	1.01	
		기타모임	6	2.79	1.20	
		참여한 적 없음	47	2.48	1.43	
다문화인식개선	결혼생활에 가장 힘이 되어주는 사람	남편	89	2.40	1.32	3.968*
		기타	21	2.56	1.24	
	모국가족과의 연락주기	거의매일	15	2.33	1.42	5.175**
		주1회 이상	64	2.39	1.40	
		월1회 이상	23	3.23	1.17	
	연4회 이상	8	1.19	.69		
사회생활 적응교육	결혼생활에 가장 힘이 되어주는 사람	남편	94	2.22	1.21	4.215*
		기타	24	2.18	1.33	
	모국가족과의 연락주기	거의매일	20	2.09	1.15	6.851***
		주1회 이상	66	2.14	1.24	
		월1회 이상	24	2.96	1.20	
	연4회 이상	8	.84	.57		

*p<.05, **p<.01, ***p<.001

및 현물지원에 대한 요구도는 4점을 넘게 나타나 경제적인 지원을 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생활적응교육은 한국에서 생활을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유목화한 영역으로 응답의 수(n=811)는 매우 많은 반면 요구도(M=3.25)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회생활적응교육과 관련된 영역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도 없지만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도도 낮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집합교육은 응답자의 대다수가 참여하였으며, 비이용자 49명의 요구도(M=3.94)도 높은 편으로 결혼이민자에게 가장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에티켓교육(M=3.83), 한국명절체험(M=3.74) 및 전통예절교육(M=3.73)은 전체평균점수보다 상위권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사소통, 대인관계매너, 명절의례 등에 관한 부분이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일 것이라 예상된다.

4. 한국생활에 관한 주관적 평가에 따른 비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분석

결혼이민자가 지원기관에서 실시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비이용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국생활에 관한 주관적 평가의 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7>, <표 6>에서 응답자의 요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던 '직무 및 기술능력 향상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모국인들과 관련된 변인들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모국인 친구를 만난 적이 없거나(M=1.10) 거의 만나지 않거나(M=1.50) 모국가족과의 연락주기가 가장 간헐적인 집단(M=2.03)의 요구도 점수가 월 1회 이상 만나고 있는 집단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한국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모국인과의 교류가 없거나 혹은 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국가족과 잦은 연락을 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에서의 외부생활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거나 외부와 단절된 생활패턴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신의 경제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직무 및 기술능력 향상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도가 낮았을 것이라 추측된다.

'방문사업(F=3.391, p<.021)'과 '자녀양육(F=4.062, p<.009)'은 자조모임의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들은 참여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자녀양육에 대한 요구도 점수가 높았으며,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집단의 요구도 점수(M=3.3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이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성향이 높을 수 있으며, 또는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동안 교류하게 될 다양한 정보들이 생활에 대한 자극원으로 작용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가 보다 높아지는 것이라 여겨진다.

결혼생활에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남편인지 그 밖의 사람인지에 대한 변인은 다문화인식개선(t=3.968, p<0.049)과 사회생활적응교육(t=4.215, p<0.042)의 요구도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배우자의 사회적인 지지가 다문화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좋은 자원이 된다는 연구와도 관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추현화 등, 2008). 또한 모국가족과의 연락주기에 따라 다문화인식개선(t=5.175, p<0.002)과 사회생활적응교육(t=6.851, p<0.001)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비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은 한국사회생활적응에 관한 주관적 판단의 8가지 하위영역 중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는 변인들인 '모국인친구와의 만남빈도', '모국가족과의 연락주기', '자조모임참여', '결혼생활에 가장 힘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 누구에게 어떠한 경로를 통해 지지를 받고 있는가는 참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요구정도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동일한 대상자인 결혼이민자가 이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비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하고, 한국생활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비참여하였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수요자의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 142명을 대상으로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연구대상자가 설문에 응답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이용한 프로그램은 '한국어집합교육'으로 총 81명(57%)이 이용하였으며, 비이용자가 가장 많은 프로그램은 99명(69.7%)이 '자녀이중언어'교육에 응답하였다.

먼저 이용한 프로그램의 평균 만족도는 3.93점이었으며, 각 하위영역별 평균 점수는 생활지원(M=4.41)>방문사업(M=4.38)>가족통합교육(M=4.23)>다문화인식개선 및 문화체험(M=4.1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지원사업과 가족통합교육은 응답 수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생활적응교육은 이용한 대상자는 많았지만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특히 만족도의 평균점수가 높은 방문사업 중 멘토링 사업은 취약한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멘토링 사업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취업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있어 직무능력향상교육은 '요리교육', '컴퓨터교육', '통·번역사 교육', '취업상담 및 연계' 등 직접적인 취업활동 및 사회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이 높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국어 관련사업(집합교육, 한국어방문서비스), 요리 등의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 결혼이민자를 위한 필수프로그램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참여 프로그램에 관한 요구도는 55문항 평균 3.63점이었으며, 자녀양육지원(M=4.17)>직무 및 기술능력향상교육(M=3.81)>방문사업(M=3.65), 생활지원(M=3.6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양육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직무 및 기술능력 향상교육에 관한 평균 요구도 점수는 매우 높은 반면 다문화강사양성의 요구도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문화강사에 대한 결혼이민자들의 직업으로서의 흥미가 낮았거나 직업으로서의 가치 및 실생활에서의 활용도가 낮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사회생활적응교육은 응답자의 수가 많은 반면 요구도 점수는 낮았지만 한국어집합교육, 에티켓교육, 명절체험 등의 요구도 점수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한국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문사업의 요구도 점수는 평균을 넘었지만 멘토링에 대한 요구도는 매우 낮았다. 따라서 일대일 맞춤서비스로 진행되는 다른 방문사업들에 비해 요구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심층연구가 실시된 후 발견된 개선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적용에 관한 주관적 판단에 따른 비참여 프로그램의

요구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모국인과의 접촉 빈도, 모국가족과의 연락주기, 자조모임 참여, 한국생활에서의 지지자 변인으로 나타났다. '직무 및 기술능력향상교육'은 모국인 친구와의 만남의 빈도, 모국가족과의 연락주기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모국인과의 접촉빈도가 적은 집단들이 대체적으로 평균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모국인들과의 유대관계가 높은 집단은 지원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만났을 가능성이 높는데다가 같은 상황에 놓인 집단들 간의 지지를 통해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의 요구도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길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는 매우 많으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의 지속적인 한국사회생활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지속적인 요구도가 파악된 후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춤형의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으면서도 취업 등과 연결될 수 있는 직무능력향상영역에 관한 연구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녀양육에 관한 높은 요구도는 결혼이민여성의 자녀양육에 관한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연관시킬 수 있다. 결혼이민여성의 자녀가 결국 한국에서 살아야 할 한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엄마로서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것은 결국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자녀양육에 대한 이슈와 동일하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결혼이민여성의 지원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결국 외국인이면서도 한국에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의지가 있으며, 한국인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관점을 지닌 여성의 입장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대상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취지에 부합될 수 있지만,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과 그 가족의 전체를 대변하는 것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결혼이민여성을 조사하는데 있어 통역 및 번역과정의 난제가 따라 조사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통한 질적 연구가 진행되거나 수요자인 결혼이민자의 요구도는 높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있어 방해요인과 지지요인은 무엇인지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기정·정천석(2009). 다문화가정 부부의 가정생활 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3권 2호, pp. 153-167.
- 계선자·강혜경·정미선(2009). 다문화가족의 결혼생활 관련요인 분석. 용산구 다문화가족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3권 3호 pp. 31-57.
- 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혜련·이혜경·설동훈·정기선·심인선(2009).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0-06
- 김양희·박정윤·김효민·백선아(2008). 결혼이민자가족 관련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제 12권 2호. pp. 121-140.
- 김유경(2005).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51호 pp. 29-52.
- 김현숙(2010).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제62권 제2호 pp. 135-159.
- 매일경제뉴스. 2010-4-27.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215722>
- 박기관(2009). 다문화시대 결혼이민자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2009년도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pp. 87-106.
- 박재규(2009). 국제결혼여성이민자및남편의가족사회생활적응연구. 한국보건사회학회, 보건과사회과학제26집, pp. 137-163.
- 박진영(2009).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어려움과 교육참여 경험. 평생교육학회지. 제15권 2호 pp. 77-104.
- 박행모·문승태(2008).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사회생활적응 교육을 위한 실태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 40권 제 2호 pp. 69-91.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설동훈(2006). 한국의 결혼이민자 가족 : 현황과 정책,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06년 추계학술대회, pp. 1-20.
- 설동훈(2010). 다문화 가족정책의 현황과 과제.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제138호, pp. 13-17.
- 설동훈·윤홍식(2005).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5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2005.10, pp. 247-265.
- 양순미(2006).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의 적응지원 정책 개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 2006 농업과학기술대전학술행사, pp. 78-84.
- 오윤자·정민자·라휘문·박정윤·김상만(2009), 2009용역

- 연구 보고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모델 및 발전 방안'. 보건복지가족부
- 유용식·손호중(2009). 다문화 사회 대응 정책 우선 순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6권 2호. pp. 447-470.
- 이순형(2007). 농촌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적응문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pp. 13-27.
- 이학춘(2010). 다문화사회의 가족정책 패러다임 변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월간복지동향제138호, pp. 4-8.
- 이혜자·강기정(2009). 다문화가족의 적응과 우리사회의 대응, 한국행정학회 Conference 자료, 한국행정학회 2009년도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2009.2, pp. 8-27.
- 장명선·이옥경(2009),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능력 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09-정책개발-015
- 장진경·전종미·신유경(2008). 심층면접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적응성 저해요인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기타 간행물, 2008년 추계학술대회, pp. 47-63.
- 정기선(2008).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특성과 이민사회생활적응: 출신국가별 차이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0집. pp. 70-103.
- 조상균·이승우·전진희(2008). 다문화가정지원법제의 현황과 과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1호, pp. 147-174.
- 최승희(2008).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실천 및 정책 제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월간 복지동향 제117호, pp. 4-8.
- 최운선(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46권 1호 pp141-181.
- 최혜지(2009).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 1호 2009.2 pp. 163-194.
- 추현화·박옥임·김진희(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 배우자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08년 추계학술대회, pp. 285-298.

접수일 : 2010년 05월 15일

심사일 : 2010년 05월 27일

심사완료일 : 2010년 08월 20일